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성취를 위한 우리나라 OECM 발굴방향 연구^{1a}

- 개념 고찰 및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

허학영^{2*} · 박선주³

A Study on the Identifying OECMs in Korea for Achieving the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1a}

- Focusing on the Concept and Experts' Perception -

Hag-Young Heo^{2*}, Sun-Joo Park³

요약

본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 글로벌 보전목표(K-M GBF)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천목표 3(30by30)에 대한 우리나라의 효과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OECM에 대한 글로벌 개념 고찰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OECM 발굴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되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OECM 발굴방향을 모색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OECM 관련 한국적 용어 사용, ②글로벌 표준을 반영한 결정인자(criteria) 도출, ③우리나라 잠재 OECM 후보 유형 도출, ④OECM 발굴보고 시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OECM의 단순 번역어 사용이 아닌 이의 개념을 잘 반영한 '한국적 용어' 사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있었으며, 가장 선호되는 용어이자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생물다양성협약(CBD) 2050 비전과도 그 맥락을 같이하는 '자연공존지역(12명)'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표준을 반영한 주요 결정인자로는, 1단계 선별과정에서 OECM 핵심 특성을 반영한 4개 결정인자(1. 보호지역 여부, 2. 지리적 경계, 3. 거버넌스관리, 4. 생물다양성 가치)를 활용하고, 개별지역 심층진단을 수행하기 전에 관라관할기관 등과의 공감대형성(2단계) 과정을 거친 후 3단계(발굴보고단계)에서 2가지 결정인자(3-1 거버넌스 관리의 효과성과 지속성, 4-1의 생물다양성 가치의 장기적 보전성과)를 추가하여 심층 진단을 수행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28개 유형은 대체적으로 OECM 부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4.45-6.21점7점, 평균 5.24점), 특히 자연환경국 민신탁의 보전재산(6.21점) 및 보전협약지(6.07점)가 OECM 개념에 가장 잘 부합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5.77점), 사찰림(5.73점), 개발제한구역(5.63점), 비무장지대(5.60점), 생물권보전지역 완충구역(5.50점) 등이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보전무인도서의 경우 보호지역에 부합한다는 응답(5.83/7점)이 OECM 부합성(5.52/7점) 보다 더 높게 나타나, 향후 절대보전무인도는 그 주변해역(1km)과 더불어 한국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KDPA)에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OECM 관련 글로벌 표준 검토 및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적 맥락의 OECM 발굴시 고려사항으로 10가지를 제시하였다. 향후 이러한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단계적인 발굴사업을 통해 OECM을 목록화하고 기존 보호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국가 차원의 현자-내 보전체계 정립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실천목표 3, 30by30, 자연공존지역, 한국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 보전재산

1 접수 2023년 5월 15일, 수정 (1차: 2023년 6월 21일), 게재확정 2023년 6월 27일
Received 15 May 2023; Revised (1st: 21 June 2023); Accepted 27 June 2023

2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Policy Research Division, Korea National Park Reserach Insitute, Korean National Park Service, 171 Dangu-ro, Wonju 26441, Korea (hagyoung.heo@knps.or.kr)

3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연구원 Policy Research Division, Korea National Park Reserach Insitute, Korean National Park Service, 171 Dangu-ro, Wonju 26441, Korea (sjpark@knps.or.kr)

a 이 논문은 IUCN-환경부(국립공원공단)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hagyoung.heo@knps.or.kr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irection for Korea's effective response to Target 3 (30by30),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the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K-M GBF)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to find the direction of systematic OECM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discovery at the national level through a survey of global conceptual review and expert perception of OECM. This study examined ① the use of Korean terms related to OECM, ② derivation of determining criteria reflecting global standards, ③ deriving types of potential OECM candidates in Korea, and ④ considerations for OECM identification and reporting to explore the direction for identifying systematic, national-level OECM that complies with global standards and reflects the Korean context.

First, there was consensus for using Korean terminology that reflects the concept of OECM rather than simple translations, and it was determined that "nature coexistence area" was the most preferred term (12 people) and had the same context as CBD 2050 Vision of "a world of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This study suggests utilizing four criteria (1. No protected areas, 2. Geographic boundaries, 3. Governance/management, and 4. Biodiversity value) that reflect OECM's core characteristics in the first-stage selection process, carrying out the consensus-building process (stage 2) with the relevant agencies, and adding two criteria (3-1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governance and management and 4-1 Long-term conservation) and performing the in-depth diagnosis in stage 3 (full assessment for reporting).

The 28 types examined in this study were generally compatible with OECMs (4.45-6.21/7 points, mean 5.24). In particular, the "Conservation Properties (6.21 points)" and "Conservation Agreements (6.07 points)", which are controlled by National Nature Trust, are shown to be the most in line with the OECM concept. They were followed by "Buffer zone of World Natural Heritage (5.77 points)", "Temple Forest (5.73 points)", "Green-belt (Restricted development zones, 5.63 points)", "DMZ (5.60 points)", and "Buffer zone of biosphere reserve (5.50 point)" to have high potential. In the case of "Uninhabited Islands under Absolute Conservation", the response that they conformed to the protected areas (5.83/7 points) was higher than the OECM compatibility (5.52/7 points), it is determined that in the future, it would be preferable to promote the listing of absolute unprotected islands in the Korea Database on Protected Areas (KDPA) along with their surrounding waters (1 km).

Based on the results of a global OECM standard review and expert perception survey, 10 items were suggested as considerations when identifying OECM in the Korean context. In the future, continuous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the potential OECMs through site-level assessment regarding these considerations and establish an effective in-situ conservation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by linking existing protected area systems and identified OECMs.

KEY WORDS: Action Target 3, 30by30, Nature Ccoexistence Area, KDPA, Conservation Properties

서론

최근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목표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를 채택하였다. K-M GBF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2050 비전 성취를 위해 2030년

까지의 실천목표(action target) 23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실천목표 3(Action target-3)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육수, 연안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및 기타 효과적인 보전수단(OECM;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으로 효과적 보전관리”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국가 목표 설정 및 성취 방향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P4G 서울 정상회의(21.5)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3가지 생물다양성 국제 이니셔티브!’ 동참을 공식 선언하였는데, 이중 하나가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 성취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 및 해양 면적의 30%를 보전지역(보호지역+OECM)으로 지정하겠다는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확대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이며, 현재(23.2월) 프랑스, 코스타리카, 영국 주도로 100여 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보전현황을 살펴보면(CBD, 2022) 육상은 16.98%, 해양은 8.26%가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보전목표(30by30) 성취를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신규 지정 및 확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OECM의 체계적 발굴 및 보고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의 효과적 발굴보고를 도모하기 위해 글로벌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침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생물다양성협약(CBD)은 “OECM 관련 과학기술적 자문(CBD Decision 14/8, 2018)”,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OECM 발굴보고를 위한 IUCN 지침(IUCN-WCPA TF, 2019)”과 “OECM 개별지역 발굴도구(IUCN-WCPA, 2022)”를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보전목표에 따른 국가목표 설정 및 이의 성취를 위한 OECM 관련 연구로, 글로벌 목표 설정 및 성취 현황 관련 연구(허학영, 2020), OECM의 개념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OECM 후보지역 발굴 관련 연구(홍진표 등 2017, 허학영 등 2017, 심윤진 등 2022, 전다슬 등 2022)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2019)에서도 권고하고 있듯이, OECM의 발굴보고를 위한 국가별로 조정된 실증기반 평가 도구를 마련적용하기 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되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OECM 발굴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OECM 관련 개념 고찰과 더불어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제시한 글로벌 지침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 OECM 대상 유형을 검토하고,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OECM 발굴을 위한 고려사항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글로벌 보전목표 설정동향과 OECM 개념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OECM에 대한 개념 정의와 이의 채택(2018) 이후 OECM의 효과적 발굴보고를 위해 제시된 생물다양성협약(CBD)의 “OECM 관련 과학기술적 자문(CBD Decision 14/8, 2018)”, CBD 결정문(CBD Decision XI/24)을 통해 지침 제고를 요청받아 IUCN에서 발간한 “OECM 발굴보고 지침(IUCN-WCPA TF, 2019)”과 “OECM 개별지역 발굴도구(IUCN-WCPA, 2022)”를 중심으로 발굴 주요 결정인자 및 발굴과정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고찰하였다. 글로벌 표준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국가적 맥락을 반영한 국내 OECM 발굴 주요 기준 도출 및 잠재 OECM 후보 유형에 대한 적용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1. 전문가 인식조사 설문항목 구성

설문조사 항목으로는 먼저 기존 보호지역을 OECM으로 재분류하는 국가들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보호지역 중 OECM 재분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보호지역과 OECM의 글로벌 정의 및 국가 보호지역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재분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가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보호지역 자료는 국가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KDPA²)에 등록된 지역을 검토 대상으로 하였으며, 재분류가 필요하다면 추진 시 중점검토 필요지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타 효과적인(지역기반) 보전 수단’ 또는 ‘기타 효과적인(지역기반) 보전 조치’ 등의 용어를 대체할 국내 용어 설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과 함께, 단순 번역어 사용이 아닌 OECM 개념을 반영한 한국적 용어의 선호에 관한 전문가 인식을 조사하였다. 한국적 용어 설정을 위해서, 우선 국내 자연환경 보전 분야 전문가 8인 및 IUCN 전문가 3인의 의견수렴(2022.10.11.~19.)을 통해 자연 공존지역, 생명조화지대, 지속가능관리지역, 생태문명지역, 자연완충지역, 공생번영지역 등을 후보 용어로 객관식으로 제시하였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용어를 응답자들이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잠재 OECM 부합 여부를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우선 OECM의 발굴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CBD의 10가지 결정인자(Criteria)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OECM 발굴 시 고려해야 할 결정인자별 중요도를 질문하였다. 다음 단계로 국내 OECM 우선 검토 유

1)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Leader's Pledge for Nature; 지속가능한 어업 근절, 해양쓰레기/미세플라스틱 저감, 유해보조금 근절 등 10개의 포괄적 공약), 생물다양성보호지역확대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30by30), 세계해양연합(Global Ocean Alliance, 해양의 30%)

2) <https://kdpa.kr>

Table 1. Responden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Respondents	
Affiliation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 incl.)	15	50%
	Local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 incl.)	1	3%
	Academia	9	30%
	NGO	1	3%
	Etc.	4	14%
Expertise	Less than 5 years	3	10%
	5~10 years	5	17%
	10~20 years	9	31%
	More than 20 years	12	42%

형의 도출은 기존 보호지역이 아닌 지역 중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지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토지 이용규제 지역·지구 총 243개 유형) 중 생물다양성 보전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외 생물다양성 현지 내 보전 성과가 기대되는 지역 도출을 위해 자연환경 관련 법령·기본계획 및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지역들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비정부기구 보전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중 자연 보전 관련 지역, 종중재산, 종교성지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잠재 OECM 우선 검토대상으로 28개 유형을 도출하고, 이들 유형에 대하여 보호지역 가능성과 함께 OECM 부합성에 대한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잠재 OECM 가능성에 관한 문항에는 각 유형의 지정·관리 목적, 지정·현황, 관리·관할주체, 근거법 등 검토기준이 될 수 있는 기초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설문 응답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실제 OECM 발굴 시에는 개별 지역별 적용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되, 본 연구의 설문에서는 유형별 전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경향성을 판단하는 것임을 전제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전문가 설문조사 방법

설문조사는 국내 보전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국가보호지역 포럼’³⁾ 위원 30인, IUCN 녹색목록 (Green List) 국내 전문가 그룹 8인, 기타 국내 자연환경 분야 종사자 및 학계 전문가 23인으로 총 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설문조사는 제3차 국가보호지역전문가 포럼(2022.10.19.)에서 15명의 관

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응답하였으며, 2차 조사는 2022년 11월 15일~29일 간 전자메일을 통해 1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총 30명의 전문가가 조사에 응답하였다. 설문지는 두 차례 모두 동일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재분류가 필요한 보호지역, 용어 설정 및 국내 OECM 발굴 및 적용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한국적 맥락과 제도적 방안은 주관식 답변을 통해 의견을 수집하였다.

응답자의 50%는 정부 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이며, 지자체 및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소속 3%, 대학 등 학계 전문가 30%, NGO 등 기타 기관 전문가 17%가 응답에 참여했다. 응답자의 73%는 10년 이상 보전 분야에 종사해온 것으로 응답하였다(Table 1).

OECM 개념 및 글로벌 지침 고찰

1. 기타효과적인보전수단(OECM) 개념의 등장 배경과 정의

OECM 개념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 생물다양성협약 (CBD 전문⁴⁾의 현지·내 보전(in-situ conservation, 8조)과 관련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특별한 수단(special measures)에 연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11(Aichi target-11)에서 공식적인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다. Aichi target-11은 “2020년까지, 최소한 17%의 육상 및 육수 지역, 10%의 연안 및 해양 지역(특히, 생물다

3) 기존 한국보호지역포럼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보전지역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한 국차 차원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정부부처, 관계 기관,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

4) CBD 전문은 서문, 42개 조항, 부속서 2개(확인 및 감시, 중재 및 조정)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지·내 보전(In-situ conservation) 13개 항목을 기술하고 있음.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전시스템 내용에 보호지역과 함께 특별한 수단(Special Measures)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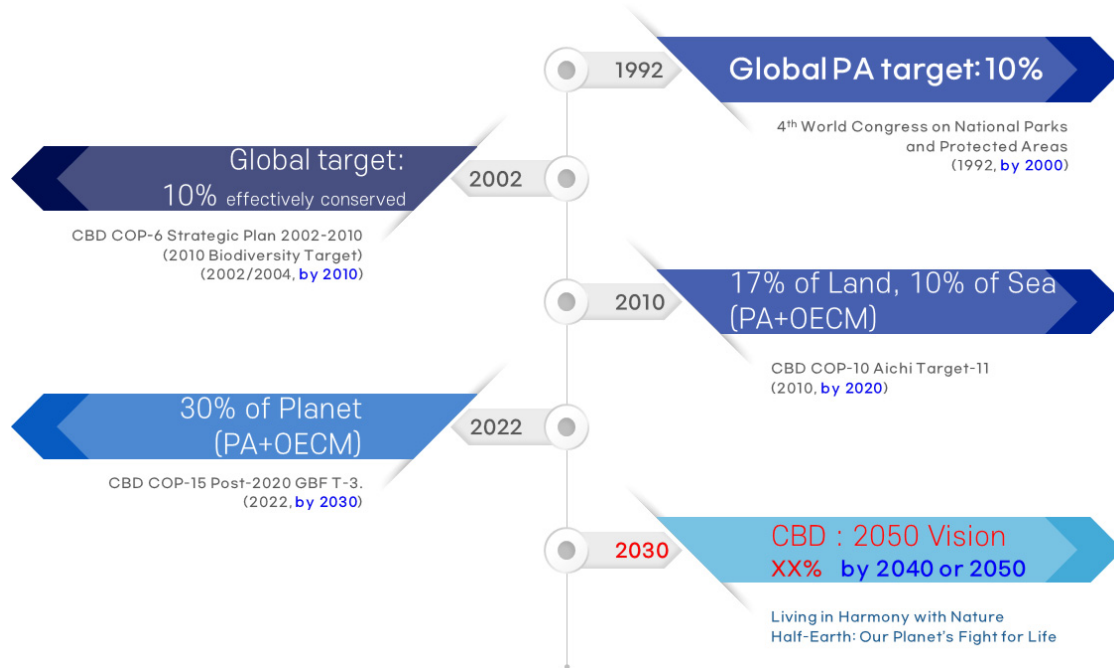


Figure 1. History of Global Conservation Targets(revision based on Heo(2022)).

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중요한 지역)을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생태적 대표성을 지니며 연결성이 확보된 보호지역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관리수단(OECMs)을 통해 보전하며 보다 넓은 광역적 육상-해양 경관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것으로 보호지역과 함께 OECM을 통한 글로벌 보전목표를 설정하였다. 글로벌 보전목표 설정동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10년 글로벌 보전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면서 OECM의 역할이 강조된 것을 알 수 있다<Figure 1> 참고.

이후 OECM의 개념 정립과 이를 식별·보고하는 데는 더딘 진행을 보였으며(Jonas et al., 2014), 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보호지역위원회(IUCN WCPA)는 Aichi target-11의 성취를 위한 기술지침 개발요청)을 담은 생물다양성협약 결정문(CBD Decision XI24)에 따라 2015년 OECM 지침 개발을 위한 특별대책팀을 구성하여 초안을 개발하였다(IUCN-WCPA Task Force on OECMs, 2019). 이러한 내용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과학기술자문회의(SBSTTA) 등을 통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제 14차 당사국총회(COP-14, 2018)에서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연관된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 경우에 따라 문화적·영적·사회경제적 기타 지역적으로 연관된 가치의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현자내 보전 성과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운영·관리되는 지리적으로 규정된 지역”으로 OECM 개념을 정의하였다

(CBD/COP/DEC/14/8).

2. OECM 발굴을 위한 글로벌 표준

본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제시한 OECM 관련 과학기술적 자문(CBD Decision 14/8, 2018), OECM 발굴·보고를 위한 IUCN 지침(IUCN-WCPA TF, 2019), OECM 개별 지역 발굴도구(IUCN-WCPA, 2022)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OECM 관련 과학기술적 자문(CBD Decision 14/8 annex III, 2018)에서는 OECM 기본원칙 및 공통 특성을 제시하였다. OECM이 기존 보호지역을 보완하여 연결성, 대표성, 광역경관 통합 등 기존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강화할 수 있으며, OECM을 통해 기존 생물다양성 가치를 유지하고 보전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장려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OECM 인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야 하며, 지속적 성과 확보를 위한 지원과 거버넌스 역량 증진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OECM 발굴을 위한 결정인자(Criteria for Identification)로 다음과 같은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보호지역이 아님(Not a protected area; 보호지역이나 그 일부로 인정되거나 보고되지 않았으며, 타 기능/목적 위해 지정), ②지리적으로 규정된 지역/공간(Geographically defined space; 규모·면적, 지리적 경계), ③적법한 거버넌스(Legitimate governance authorities; 보전 성

5)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1(Aichi target-11) 성취하기 위한 기술지침 개발(to develop technical guidance to achieve the full scope of Aichi Biodiversity Target 11)

취에 적합한 거버넌스 조직), ④관리되는(Managed; 긍정적·지속적 보전 성과를 성취하는 방식), ⑤효과적인 (Effective; 기존 위협 또는 예상되는 장래 위협 대응 메커니즘 등), ⑥장기적 지속가능성(Sustained over long term; 지속성은 거버넌스와 관리 연속성 관련, 장기적은 생물다양성 성과 관련), ⑦생물다양성 현지내 보전 (In situ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중요한 생물다양성 속성 확인), ⑧정보와 모니터링 (Information and monitoring; 생물다양성 특성과 여타(문화정신적 등) 가치, 거버넌스·관리 상황 등), ⑨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Ecosystem functions and services; 상호작용 및 균형을 고려), ⑩문화/영적/사회경제적/기타 지역적 가치(Cultural, spiritual, socio-economic and other locally relevant values; 해당 지역의 관련 가치 파악 등) 등으로 OECM의 개념 정의에 서 언급한 주요 핵심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OECM 발굴보고를 위한 IUCN 지침(IUCN Guideline: Recognising and reporting OECMs, 2019)은 4단계 선별도구를 제안하고 있는데, 그 단계는 Test-1 보호지역 여부, T-2 OECM 정의에 따른 기본적 특성 부합 여부, T-3 지속가능한 보전성과, T-4 현지내 보전수단 목표 부합성 등으로 구성된다. Test-2 단계의 기본적 특성으로 ①위치(지리적으로 한정된 공간), ②지속적인 거버넌스 및 관리, ③효과적인 생물다양성 현지내 보전, ④생물다양성 위협요인 관리·관할 체계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선별 도구 적용을 위한 7가지 주요 고려사항으로 이해관계 확인, 검토팀 구성, 포괄적 정보(지도, 정보 등), 단계별 검증(4단계), 국가별 실증기반 평가도구 활용, OECM 보고, 판정 사유 기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개별지역 발굴 도구(IUCN, Site-level tool for identifying OECMs)’는 개별지역의 OECM 부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3단계(Step-1 잠재 OECM 여부 판단, S-2 관할 기관/권리보유자 승인, S-3 OECM 결정인자 부합 여부 심층 평가) 절차와 8가지 결정인자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1차 선별(step-1 screening) 과정은 ①보호지역 여부, ②중요한 생물다양성 가치 유무의 확인으로 구성된다. 관리·관할기관의 동의 과정인 2단계에서는 주요 관리·관할기관을 명확히 하고 의견 수렴 내용 문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OECM 발굴 마지막 단계인 종합평가(full assessment) 과정으로 ③지리적 경계, ④중요한 생물다양성 가치, ⑤가치에 대한 위협 대응활동, ⑥관리·관할 체계의 현지내 보전성과, ⑦관리·관할 체계의 지속가능성, ⑧관리·관할 체계의 형평성 고려 등 6개 결정인자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글로벌 지침을 검토한 결과, OECM을 확인하고 등재하는 과정은 잠재지역을 판단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확인·참여를 통한 세부평가 등 단계별 접근을 통한 체계적인 접근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는 선별과정으로 OECM의 핵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결정인자로 4가지(1. 보호지역

여부, 2. 지리적 경계, 3. 거버넌스관리, 4. 생물다양성 가치)를 적용할 수 있다. 2단계는 선별과정을 통해 도출된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형성 과정이며, 핵심 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후 발굴·보고단계인 3단계에서 2가지 결정인자(3-1 거버넌스와 관리의 효과성과 지속성, 4-1의 생물다양성 가치의 장기적 보전성과)를 추가하여 심층 진단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선별 결정인자별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추진과정에서 밝혀지는 모든 내용을 자료로 잘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참조>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및 고찰

1. 기존 보호지역(KDPA) 등재지역의 OECM 재분류 필요성

국가 차원의 현지내 보전체계 정립을 위해서는 OECM 발굴보고 노력과 더불어 기존 보호지역의 개념 부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DPA 등재지역을 토대로 재분류 필요성과 재분류 추진시 중점검토 지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내 보호지역(KDPA)의 OECM 재분류 검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설문 결과 5.78점(7점점)으로 기존 국내 보호지역의 OECM 재분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M 재분류 추진 시 중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13명), 도시자연공원구역(10명), 명승 및 수변구역(각 9명), 특별대책지역, 산림보호구역(생활환경보호구역)(각 8명), 산림보호구역(재해방지보호구역)(7명, 이상 중복응답 허용)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인식에 따르면 기존 KDPA 등재 지역의 OECM 부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관할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OECM을 대체할 국가차원의 용어 필요성

OECM의 발굴 및 적용 활성화를 위해 ‘기타 효과적인 보전 수단’이라는 단순 번역어 대신 새로운 한국적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평균 5.43점으로 나타나, 새로운 용어 사용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자연공존지역 및 지속가능관리지역이 가장 선호되는 용어(각 12명)로 나타났다. 이 외에 자연완충지역(4명), 공생변영지역(3명), 생태문명지역(2명) 순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의견으로 준보전지역, 자연생태보호지역, 우선생태관리지역, 환경관리지역 등의 명칭이 제안되었다.

Table 2. Screening Criteria for identifying Potential OECMs in Korea

OECM Definition (CBD, 2018)	Scientific and Technical Advice on OECM (CBD, 2018)	Recognising and reporting OECM (IUCN 2019)	Site-level tool for indentifying OECM (IUCN 2022)	K-OECM Screening Criteria
other than a Protected Area	①Not a protected area	T-1 Not already recognized and/or recorded as a protected area	S-1/C-1. not a protected area	1. Not a Protected Area
Geographically defined area	②Geographically defined space	T-2-1 geographically defined space (location)	S-3/C-3. geographically defined area	2. geographically defined area(space)
governed	③Legitimate governance authorities	T-2-2 Sustained governance and management	S-3/C-7. Governance and management arrangements are likely to be sustained S-3/C-8. governance and management arrangements address equity considerations	3. governance and management (3-1 effective and sustained)
managed	④Managed	T-2-4 managed	S-3/C-5. Activities which threaten the important biodiversity values of the site are prevented or mitigated	
achieve positive	⑤Effective	T-2-3 Effective	S-3/C-6. Governance and management of the site results in the in situ conservation of important biodiversity values	
sustained long-term outcomes	⑥Sustained over long term	T-3 conservation outcome will endure over the long-term	S-3/C-7. Governance and management arrangements are likely to be sustained	4. Biodiversity Value (4-1 long-term conservation outcome)
in situ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⑦In situ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T-2-3 in-situ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S-1/C-2. likely to support important biodiversity values S-3/C-4. confirmed to support important biodiversity values S-3/C-6. Governance and management of the site results in the in situ conservation of important biodiversity values	
	⑧Information and monitoring			Basic Information Required (objectives, relevant values...etc)
<i>associated ecosystem functions and services</i>	⑨Ecosystem functions and services		Information required	
<i>where applicable, cultural, spiritual, socio-economic, and other locally relevant values</i>	⑩Cultural, spiritual, socio-economic and other locally relevant values		(Ecosystem Services and cultural, spiritual and local economic values, List the values of the site)	
		T-4 Ensure that an in-situ area-based conservation target		

3. 국내 OECM 발굴 시 중요 기준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제시한 OECM 결정인자 10개 기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OECM 발굴 시 고려해야 할 중요도를 설문한 결과, ‘지리적 경계(6.27/7점)’와 ‘관리관할 지속성/장기 보전성과(6.14/7점)’가 가장 중요한 인자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보호지역 여부(6.0/7점)’와 ‘관리되는(6.0/7점)’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리적 경계’의 명확성이 해당지역의 실체파악에 용이하고 ‘Paper Park’이 아님을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자로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ECM이 기존 보호지역과 다르게, 생물다양성 보전 목적이 아니면서도 보전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수단 관점’과 ‘생물다양성 가치의 보전성과 관점’에서 그 특성을 고찰하는 두가지 접근이 모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가장 잘 반영한 결정인자로 ‘관리·관할 지속성/장기 보전성과’가 중요하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잠재 OECM 발굴을 위한 우선 검토 유형

1) 잠재 OECM 발굴을 위한 우선 검토 유형 도출

잠재 OECM 발굴을 위한 후보 유형으로 도출을 위해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지역 및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대되는 지역을 지정·관리 목적 및 현황, 보호지역 여부, 지리적 경계, 보전 가치, 관할·관리, 장기지속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8개 부처 및 민간이 관할·관리하는 28개 유형이 도출되었다. 28개 유형은 자연환경국민신탁 보전재산 및 보전협약지, 수목원·식물원, 자연휴양림, 전통사찰보존구역, 사찰림,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 무인도서(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자율어업지역, 보호수면, 해양보호구역 외 갯벌,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중 녹지(주/상/공, 녹지),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보전/생

Table 3. Results of the survey about the importance of OECM criteria in Korean context

Criteria for identification of OECMs based on CBD Decision 14/8 annex III	Mean	SD
Not a protected area: The area is not currently recognized or reported as a protected area or part of a protected area	6.00	1.39
Geographically defined space: Size and area are described, including in three dimensions where necessary; Boundaries are geographically delineated.	6.27	0.73
Legitimate governance authorities: Governance is appropriate for achieving in situ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within the area; it may be by a single authority and/or organization or through collaboration among relevant authorities.	5.83	0.86
Managed: in ways that achieve positive and sustained outcomes for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Relevant authorities and stakeholder are identified and involved to manage threats, etc.	6.00	0.89
Effective: The area achieves, or is expected to achieve, positive and sustained outcomes for the in situ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Mechanisms, such as policy frameworks and regulations, are in place to recognize and respond to new threats, etc.	5.90	1.04
Sustained over long term: The OECMs are in place for the long term or are likely to be; “Sustained” pertains to the continuity of governance and management and “long term” pertains to the biodiversity outcome.	6.14	0.90
In situ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the identification of the range of biodiversity attributes (e.g. communities of rare, threatened or endangered species, representative natural ecosystems, range restricted species, KBAs, areas providing critical ecosystem functions and services, areas for ecological connectivity)	5.83	1.10
Information and monitoring: Identification of OECMs should, to the extent possible, document the known biodiversity attributes, as well as, where relevant, cultural and/or spiritual values, of the area and the governance and management in place as a baseline for assessing effectiveness.	5.47	1.02
Ecosystem functions and services: are supported, taking into account interactions and trade-offs, with a view to ensuring positive biodiversity outcomes and equity; Management does not impact negatively on the sites overall biological diversity.	5.62	0.85
Cultural, spiritual, socio-economic and other locally relevant values: Governance and management measures identify, respect and uphold the cultural, spiritual, socioeconomic, and other locally relevant values of the area, where such values exist.	5.37	1.05

Table 4. Results of the importance of OECM criteria in Korean context

		PA	defined space	In-situ conservation	Governed/managed	Sustained	Notes
NNT	Conservation Properties	×	○	○	○	○	
	Conservation Agreements areas	×	○	○	○	△	
KFS	Arboretums/Botanic Gardens	×	○	△	○	○	
	Natural Recreation Forests	×	△	○	○	○	
	Traditional Temple Preservation Zones	×	○	△	○	○	
	Temple Forests	×	△	△	△	△	
CHA	World Natural Heritage (Buffer Zones)	×	○	○	○	○	
	Uninhabited Islands under Absolute Conservation	×	△	○	△	○	
	Uninhabited Islands under Quasi-conservation	×	△	○	△	○	
	Available Uninhabited Islands	×	△	○	△	○	
	Marine Use Zones (Environment and Ecosystem Management Zones)	×	○	○	○	○	
MOF	Marine Use Zones (Research and Education Conservation Zones)	×	○	○	○	○	
	Marine Use Zones (Safety Management Zones)	×	○	△	○	○	
	Self-imposed Control Fisheries areas	×	△	△	△	△	
	Protected Waters	×	○	○	△	○	
	Tidal Flats except MPAs	×	○	○	△	○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	○	△	○	○	
MOLIT	Urban Areas (Green Areas)	×	○	△	△	○	
	Control Areas (Conservation Control Areas)	×	○	△	△	○	
	Protection Districts (Ecosystem Protection Districts)	×	○	△	△	○	
MOE	Natural Resting Areas	×	△	○	○	○	
	Biosphere Reserves (Buffer Zones)	×	○	○	○	○	
MOE/MOU	DMZ (Natural Reservation Areas)	×	○	○	○	○	
MAFRA	National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	△	△	○	○	
MND	Military Base and Installation Protection Zones	×	○	△	○	○	
	Business sector's nature conservation areas	×	△	△	△	△	
	Religious shrines	×	△	△	△	△	
	Lands owned by clans	×	△	△	○	△	

NNT(National Nature Trust), KFS(Korea Forest Service), CHA(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MOF(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LIT(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E(Ministry of Environment), MOU(Ministry of Unification), MAFRA(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ND(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Applicable) , △ (Partly applicable), × (Not applicable)

산/계곡), 보호지구 중 생태계보호지구(역사문화환경, 중요사설물, 생태계), 자연휴식지, 생물권보전지역 완충구역, 비무장지대(자연유보지역), 국가중요농업유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기업 사회공헌지역, 종교성지, 종중재산 등이다.

2) 잠재 OECM 적용 가능성

설문 결과 기 도출된 28개 유형의 OECM 가능성은 4.45~6.21점(평균 5.24) 사이에 분포하여, 대체로 OECM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국민신탁 보전재산(6.21) 및 보전협약지(6.07)가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

Table 5. Results of the possibility as Protected Areas or OECMs

	Protected Areas		OECM	
	Mean	SD	Mean	SD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3.50	1.70	5.63	1.11
Conservation Properties	4.76	1.50	6.21	1.16
Conservation Agreements areas	3.97	1.47	6.07	1.01
Arboretums/Botanic Gardens	3.50	1.61	5.37	1.56
Natural Recreation Forests	3.18	1.34	5.33	0.94
Traditional Temple Preservation Zones	3.61	1.72	5.47	1.06
Temple Forests	3.79	1.52	5.73	0.77
World Natural Heritage (Buffer Zones)	3.82	1.58	5.77	1.26
Uninhabited Islands under Absolute Conservation	5.83	1.29	5.52	1.71
Uninhabited Islands under Quasi-conservation	4.79	1.47	5.28	1.48
Available Uninhabited Islands	3.14	1.70	4.55	1.43
Self-imposed Control Fisheries areas	2.48	1.23	4.45	1.35
Protected Waters	4.54	1.86	5.23	1.45
Tidal Flats except MPAs	4.21	1.52	5.55	1.10
Military Base and Installation Protection Zones	3.14	1.90	4.60	1.56
Natural Resting Areas	3.46	1.38	5.13	1.09
DMZ (Natural Reservation Areas)	4.86	1.90	5.60	1.33
Biosphere Reserves (Buffer Zones)	3.69	1.49	5.50	1.20
National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3.36	1.39	5.50	1.18
Marine Use Zones (Environment and Ecosystem Management Zones)	4.41	1.59	5.21	1.47
Marine Use Zones (Research and Education Conservation Zones)	3.64	1.74	5.14	1.17
Marine Use Zones (Safety Management Zones)	3.14	1.38	4.60	1.36
Urban Areas (Green Areas)	2.68	1.51	4.70	1.53
Control Areas (Conservation Control Areas)	3.43	1.68	4.69	1.37
Protection Districts (Ecosystem Protection Districts)	4.60	1.70	5.07	1.41
Business sector's nature conservation areas	2.75	1.33	5.13	1.09
Religious shrines	3.07	1.65	5.13	1.36
Lands owned by clans	2.64	1.49	4.50	1.48

으며,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5.77), 사찰림(5.73), 개발제한구역(5.63), 비무장지대(자연유보지역)(5.60), 해양보호구역 외갯벌지역(5.55), 절대보전무인도서(5.52),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구역(5.50), 중요농업유산(5.50) 등이 OECM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28개 유형의 보호지역으로서의 가능성은 2.48~5.83점(평균 3.71)으로 대체로 낮게 나타났는데, 그 중 절대보전무인도서(5.83)는 보호지역에 부합한다는 응답이 OECM 부합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외 OECM 부합성보다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보호지역 부합 응답이 높게 나타난 지역으로 보전제

산(4.76), 준보전무인도서(4.79) 등이 있었다.

5. 국내 OECM 발굴·적용을 위한 고려사항

공통적으로 OECM이 국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존 보호지역 체계와의 관계 정립 및 OECM 발굴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OECM 발굴, 등재 및 관리를 위한 절차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함에 있어 관할 부처 및 기존 관리 형태를 존중하되 공통된 가이드라인 및 법/제도적 지속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보호지역이 국내에서 사유재

Table 6. Considerations for applying OECM concepts in Korean context

	Results of the survey
Legal ba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s with existing legislation •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other effective conservation measures • Linkage with the way of reducing harmful incentives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Identif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assification system of OECM (e.g. legally regulated areas, conventional conservation areas, etc.) • Additional review for identifying potential OECMs (e.g. Experiment forest, National Wetland Inventory, Agricultural Reservoirs, buffer areas between urban and natural ecosystem) • Prior identification of state-owned and public lands; encouragement of voluntary registration and supplementation of related institutions in case of private lands
Procedure/Crite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mon criteria/guidance of recognising, reporting, managing, monitoring and withdrawing OECMs • Development of appropriated criteria in domestic context (traditional/conventional land use, etc.) • Prior conservation of important/threatened ecosystems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roach to land-use category, reporting, management (no additional regulation) • Building the integrated database • Capacity building of stakeholder (local government, residents, etc.) • Developing conservation agreement with temples/clans
Gover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tablishing the committee on OECMs registration/withdrawal • Inter-departmental cooperation • Public-private cooperation • Building a networking platform among voluntary conservation entities • Sustainable governance system (local participation) • Facilitating information and experiences sharing
Particip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nding inducements (verification, support, incentives, etc.) for voluntary conservation; integrated use of existing supporting policies • Raising public awareness through campaigns, etc. • Sharing best practices and benefits of stakeholder

산권 침해 수단으로 인식되어 지역주민에게 수용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초기단계에서는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등재 추진하되 사유지는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자율적 보호(규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OECM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홍보하는 등 인식증진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 채택된 글로벌 보전 목표(K-M GBF)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0by30 목표에 대해 국가차원의 효과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OECM의 개념 고찰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OECM

발굴보고에 관한 고려사항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되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체계적인 OECM 발굴방향으로 ①글로벌 표준을 반영한 결정인자(criteria) 도출, ②한국적 용어 사용, ③우리나라 잠재 OECM 후보 유형 도출, ④OECM 발굴보고 시 고려사항 등을 검토제시하였다.

먼저 ①글로벌 표준을 반영한 결정인자 도출과 관련하여, OECM의 체계적 발굴을 위해서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선별과정에서 OECM 핵심 특성을 반영한 4개 결정인자(1. 보호지역 여부, 2. 지리적 경계, 3. 거버넌스관리, 4. 생물다양성 가치)를 활용하고, 개별 심층진단을 수행하기 전에 관리·관할기관 등과의 공감대형성(2단계)을 거친 후 3단계(발굴보고단계)에서 2가지 결정인자(3-1 거버넌스와 관리의 효과성과 지속성, 4-1의 생물다양성 가치의 장기적 보전 성과)를 추가하여 심층 진단을 수행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효과적 의사결정을 위해 선별 결정인자별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추진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이해관계자 및 대중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 번역어 사용이 아닌, OECM 개념을 잘 반영한 ‘한국적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선호되는 용어인 ‘자연공존지역(12명)’과 더불어 ‘공생변영지역(3명)’에 대한 응답이 추가적으로 있었는데, 이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2050 비전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OECM에 대한 한국적 용어로는 ‘자연공존지역’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시 영문 약어를 병기하여 ‘자연공존지역(OECM)’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잠재 OECM 후보 유형을 발굴하기 위해 법령·법정계획 및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해 우선 검토 유형 28개를 도출하였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OECM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서 관리·관할하는 보전재산 및 보전협약지가 OECM 개념에 가장 잘 부합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 사찰림, 개발제한구역, 비무장지대(자연유보지역), 갯벌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완충구역, 국가중요농업유산 등도 OECM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28개 유형이 대체적으로 OECM 부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4.45~6.21점/7점, 평균 5.24점), 이들 유형을 대상으로 발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전체적인 목록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부합성이 높게 나타난 지역을 중심으로 OECM 우수사례를 발굴·등재하는 노력을 우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별도로 절대보전무인도서의 경우 보호지역에 부합한다는 응답(5.83/7점)이 OECM 부합성(5.52/7점) 보다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절대보전무인도서(140개소, 7.01km²)는 그 주변해역(1km)과 더불어 보호지역으로 등재(KDPA, WDP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OECM 관련 글로벌 표준 및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적 맥락의 OECM 발굴시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이 10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글로벌 정의 부합성(보호지역 or OECM) 우선 적용, ②OECM 개념의 친화성 증진을 위해 번역어가 아닌 한국적용어(국가명칭) 사용 ((가칭) 자연공존지역), ③OECM 적합성 평가는 개별지역(site)별 신중한 검토 필요(불가피할 경우 유형/그룹별 검토), ④다양한 권리보유자/이해관계자 폭 넓은 참여 네트워크(이해관계자연합, 소통 플랫폼) 구축, ⑤발굴·등재의 확장성과 자율성을 위해 자발적 인증제(목록화) 도입 검토 (자발참여·자율규제 지향), ⑥수단조치(measures)의 지속성, 장기적 성과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정책) 고려, ⑦대상지역 가치를 검토할 때, 생물다양성 가치를 공유하는 주변지역과 더불어 검토(광역 관점, 연결성·온전성, 복원 지역은 보전 성과 발현, 여타 연관된 가치의 종합적 고려),

⑧다양한 OECM 유형 발굴 및 효과적 확산을 위해 도입 초기 정부주도형 발굴 추진, ⑨효과적 OECM 발굴 정보구축을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KD-OECM) 구축 도모, ⑩기존 보호지역체계와 연계한 국가 현지-내 보전체계 정립 추진 등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결정인자와 발굴과정을 적용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시범적용 사례연구를 통해 결과를 검증·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굴사업을 통해 한국적 ‘자연공존지역(OECM)’의 특성을 분석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DB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발굴된 ‘자연공존지역(OECM)’과 기존 보호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국가 차원의 현지-내 보전체계 정립 및 글로벌 보전목표 성취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CBD(2012) Protected areas (CBD/COP/DEC/11/24).
- CBD(2018) Protected areas and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CBD/COP/DEC/14/8).
- CBD(2022a)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CBD/COP/DEC/15/4).
- CBD(2022b) Global status, gaps and opportunities of protected areas and other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CBD/COP/15/INF/3).
- Heo, H.Y.(2020) A review on the international trends for establishing post-2020 national targets relevant to protected areas. Korean J. Environ. Ecol. 34(6): 601-60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Heo, H.Y.(2022) The 4th meeting of Korea protected areas forum. (in Korean)
- Heo, H.Y., D.G. Cho, Y.J. Shim, Y.J. Ryu, J.P. Hong and G.W. Shim(2017) A study on the expanding protected areas through identifying potential protected areas. Korean J. Environ. Ecol. 31(6): 586-594.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Hong, J.P., Y.J. Shim and H.Y. Heo(2017) Identifying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for expanding national protected areas. J. Korean Env. Res. Tech. 20(6): 93-105.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IUCN-WCPA Task Force on OECMs(2019) Recognising and reporting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Gland, Switzerland: IUCN.
- IUCN-WCPA(2022) Site-level tool for identifying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OECMs). Version 2.0. Gland, Switzerland: IUCN.
- Jonas, H., V. Barbuto, H.C. Jonas, A. Kothari and F. Nelson(2014)

New steps of change: Looking beyond protected areas to consider other effective area based conservation measures. *PARKS* 20(2): 111-128.

Jun, D.S. and H.S. Shin(2022)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OECMs) for natural heritage; Focusing on the old big trees of natural monument and Dongsan ritual.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40(3): 1-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OREA Database on Protected Areas. <https://kdpa.kr>

Shim, Y.J., J.W. Sung, K.C. Lee, H.K. Kweon, Y.S. Hong, S.G. Kang and J.B. An(2022) Reviewing the candidate types for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for post-2020 management related to national protected areas system. *J. Korean Env. Res. Tech.* 25(1): 11-2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